중졸

2024년도 제 1 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제 ① 교시 국 어

1. 다음 대화에서 '민재'의 말하기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②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위로하기
③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말하며 칭찬하기
④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2. 다음 면담의 질문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면담 대상 : 커피 전문가
> 면담 목적 : 커피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 얻기
> 질문 내용 : _____

① 커피 전문가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② 커피 전문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③ 커피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④ 커피 전문가는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나요?

3.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u>않은</u> 것은?

> **■ 표준 발음법 제14항 ■**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① 값이 [갑씨]　② 넓은 [널븐]
③ 읊어 [을퍼]　④ 흙은 [흐근]

4.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음이 들어 있는 단어는?

> 이중 모음이란 소리를 낼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을 말한다.

① 강진　② 부산　③ 영월　④ 전주

5. 다음 단어의 공통된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바다　사탕　엄마　연필

①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②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③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④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6. 다음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으로 적절한 것은?

> 국어사전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찾을 때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에 '-다'를 붙인 기본형으로 찾아야 한다.
> **(예)** 달리니, 달리는, 달렸다 → 달리다

① 담장에 <u>작은</u> 참새가 앉았다. → 작다
② 여기에 <u>서니</u> 독도가 보인다. → 섰다
③ 도서관에는 <u>많은</u> 책이 있다. → 많았다
④ 여름에 <u>먹는</u> 냉면은 맛있다. → 먹는다

7.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과 같은 것은?

> 내 동생은 ㉠ <u>연구원이</u> 되었다.

① 바람이 세차게 <u>분다</u>.
② 봄꽃이 <u>활짝</u> 피었다.
③ 민서는 <u>연예인이</u> 아니다.
④ <u>아기가</u> 아장아장 걷는다.

8.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은?

① 편지에 우표를 <u>부치지</u> 않고 보냈다.
② 감기가 다 <u>낳아서</u> 병원에서 퇴원했다.
③ 이번 학교 축제에는 <u>반드시</u> 참여할 거야.
④ 나는 친구가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u>마쳤다</u>.

9. 다음 개요에서 통일성에 <u>어긋나는</u> 부분은?

제목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
서론	• 좁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을 본 경험 …… ㉠
본론	•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임. …… ㉡ – 동물원 돌고래들의 짧은 평균 수명 • 동물원에서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음. …… ㉢ – 스트레스로 인한 코끼리들의 이상 행동 • 동물원은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함. …… ㉣ – 사육사들의 따뜻한 돌봄을 받는 반달가슴곰
결론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야 함.

① ㉠　② ㉡　③ ㉢　④ ㉣

10. ㉠~㉣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수많은 생물들이 ㉠<u>습지를</u> 보금자리로 삼아 살고 있다. ㉡<u>결코</u> 습지가 사라진다면 이곳에 사는 생물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습지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u>습지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해 주는 역할도 한다.</u> 서해안 갯벌의 경우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해 이미 갯벌의 1/3이 사라졌다. 우리가 습지를 보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습지에 사는 생물들을 ㉣<u>영원이</u> 다시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① ㉠: 조사의 쓰임을 고려하여 '습지의'로 바꾼다.
② ㉡: 문장의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만일'로 고친다.
③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④ ㉣: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영원히'로 고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숙모의 심부름을 간 문기는 고깃집에서 거스름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그 사실을 안 수만이는 돈을 쓰자고 문기를 유혹하여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함께 산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문기는 남은 돈은 고깃집 마당에 던지고 샀던 물건들은 버린다. 하지만 수만이가 이것을 믿지 않고 문기에게 돈을 계속 요구하며 괴롭히자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이에게 준다. 이후 이웃집 점순이가 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죄를 뒤집어쓴다.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걸러 두 집 걸러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는다.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어 술 뜨다가는 고만둔다. 뭐 그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도무지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엘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1], 그리고 공교로이[2] 제목이 '정직'이다.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싶었다.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싶었다.

운동장에서 문기는 풀[3]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여러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지껄이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문기 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문기는 전일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

– 현덕, 「하늘은 맑건만」 –

1) 수신 시간: 일제 강점기의 도덕 시간
2) 공교로이: 생각하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게 우연히
3) 풀: 세찬 기세나 활발한 기운

11.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겪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와 배경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
③ 서술자가 사건과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서술자인 '나'가 주변 인물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2.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겠어.
② 정직하고 떳떳하게 사는 태도가 중요하지.
③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해.
④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겠어.

13.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기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② 점순이는 아랫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았다.
③ 선생님은 문기의 잘못을 이미 알고 '정직'을 주제로 수업했다.
④ 숙모는 직접 아랫집에 가서 주인 여자에게 점순이가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을 가만 감으면 ㉠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섶[1]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2]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3]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4].

– 김상옥, 「사향(思鄕)[5]」 –

1) 길섶 : 길의 가장자리. 흔히 풀이 나 있는 곳을 가리킨다.
2) 어마씨 : 어머니
3) 멧남새 : 산나물
4) 애젓하오 : 애틋하오. 섭섭하고 애가 타는 듯하오.
5) 사향(思鄕) : 고향을 생각함.

14. 윗글에서 시적 화자가 떠올린 고향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깃배가 나란히 들어선 항구
② 온 산을 둘러 피어 있는 진달래
③ 어머니의 맛있고 향긋한 꽃지짐
④ 산나물을 캐서 돌아오는 사람들

15. 윗글에서 느낄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는?

① 그리움 ② 두려움 ③ 부러움 ④ 지겨움

16. ㉠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가 쓰인 것은?

① 구수한 청국장 냄새 ② 하늘에 울리는 종소리
③ 달콤한 사랑의 추억 ④ 노랗게 물든 황금 들판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놀부는 더욱 화를 내며 나무란다.

"이놈아, 들어 보아라. 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너를 주려고 섬[1]을 헐며, 벼가 많다고 하여 너 주려고 노적[2]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돈꿰미를 헐며, 곡식 가루나 주고 싶어도 너 주자고 큰독에 가득한 걸 떠내며, 옷가지나 주려 한들 너 주자고 행랑채에 있는 아랫것들을 벗기며, 찬밥을 주려 한들 너 주자고 마루 아래 청삽사리를 굶기며, 술지게미나 주려 한들 새끼 낳은 돼지를 굶기며, 콩이나 한 섬 주려 한들 농사지을 황소가 네 필인데 너를 주고 소를 굶기겠느냐. 염치없고 생각 없는 놈이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죽는 동생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중략)

흥부 아내의 말이 변하여 울음이 되니 흥부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보 마누라, 울지 말아요. 내가 오늘 읍내를 나갔다 오리다."

"읍내는 무엇 하러요?"

"양식을 좀 꾸어서라도 얻어 와야 저 자식들을 먹이지."

"여보 영감, 그 모양에 곡식 먹고 도망한다고 안 줄 테니가 보아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가장이 나서는데 그게 무슨 소리! 어찌 될지는 가 봐야 아는 일이지 장 안에서 도포[3]나 꺼내 와요."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어허, 닭장은 장이 아닌가? 가서 내 갓도 챙겨 나와요."

"갓은 또 어디에 있답니까?"

"뒤뜰 굴뚝 속에 가 봐요."

"세상에 갓을 어찌 굴뚝 속에 두었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국상[4] 뒤에 어느 친구한테 흰 갓 하나를 얻었는데 우리 형편에 칠해 쓸 수도 없고 연기에 그을려 쓰려고 굴뚝 속에 넣어 둔 지 벌써 오래요."

[A] 흥부가 그렇게 저렇게 의관을 갖추는데 모양이 볼만했다.
헌 망건을 꺼내 쓸 때 물렛줄로 줄을 삼고 박 조각으로 관자 달아서 상투를 매어 쓰고, 갓 테 떨어진 파립은 노끈을 총총 매어 갓끈 삼아 달아 쓰고, 다 떨어진 고의적삼 살점이 울긋불긋, 발바닥은 뻥 뚫리고 목만 남은 헌 버선에 짚 대님이 희한하다.

– 작자 미상, 「흥부전」 –

1) 섬 : 곡식 등을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
2) 노적 : 곡식 등을 한데에 수북이 쌓음.
3) 도포 : 예전에 통상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딴 폭을 댄다.
4) 국상 : 국민 전체가 상중에 상복을 입던 왕실의 초상

17. '놀부'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사람
② 돈은 많으면서 남을 전혀 돕지 않는 사람
③ 파도에 밀려서 온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
④ 혼자 사는 노인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 주는 사람

18. '흥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족의 생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② 자식을 먹이기 위해 읍내로 가려고 한다.
③ 아내의 판단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양식을 빌리러 가기 어려울 정도로 행색이 초라하다.

19.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② 배경을 통해 사건을 암시한다.
③ 인물 사이의 갈등을 강조한다.
④ 인물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세금은 그것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율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율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 직접세를 걷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다. 부가 가치세를 비롯하여 개별 소비세, 인지세 등이 간접세에 해당한다.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음료수를 사 마실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소득이 적은 사람이든 동일한 음료수를 산다면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를 걷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다. 하지만 간접세는 같은 액수의 세금이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소득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 조준현, 「중학생인 나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직접세는 소득 격차 감소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② 직접세는 간접세보다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걷기 편하다.
③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④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21. ㉠과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① 김 교수는 "백색 소음이 집중력을 높인다."라고 말했다.
② 원통형 기둥은 위아래 지름이 일정한 기둥을 뜻한다.
③ 소설은 길이에 따라 단편, 중편, 장편 소설로 나눈다.
④ 젖산은 약한 산성이어서 유해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22.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① 그러나 ② 따라서
③ 그렇다면 ④ 왜냐하면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래에는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똑같은, 혹은 더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단히 ㉠ 심각한 문제이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혀가 ㉡ 둔감해져 점점 더 짜고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된다. 짠맛은 중추를 자극한다. 만약 계속해서 소금을 과하게 섭취한다면 아이들은 이런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음식을 계속 먹는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 결국 폭식증이나 비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4세에서 18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 1,688명을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 짜게 먹는 아이일수록 음료를 많이 마신다는 사실을 ㉢ 발견했다. 소금이 체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그만큼 갈증이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갈증을 달래기 위해 건강에 좋은 음료가 아니라, 단맛이 강한 탄산음료를 찾는다. 탄산음료 속에 녹아 있는 탄수화물은 비만을 더욱 ㉣ 부추길 수 있다.

소금은 분명 맛있는 유혹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의 세포를 죽이고 건강을 위협한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 클라우스 오버바일, 「소금의 덫」 -

23.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장과 근거를 파악한다.
② 상징적 의미를 추론한다.
③ 경험과 깨달음을 구분한다.
④ 갈등의 해결 과정을 분석한다.

24.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탄산음료는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② 건강을 위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③ 음식 중독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④ 자녀를 위해 부모들이 직접 요리를 해야 한다.

2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상태나 정도가 매우 깊고 중대하다.
② ㉡: 감정이나 감각이 무뎌지다.
③ ㉢: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 따위를 찾아내다.
④ ㉣: 남의 의견을 판단 없이 믿고 따르다.